

비상계엄 후폭풍...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차질

국무조정실, 13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기관 회의 진행 재검토
지난 5일 광주시·국방부 등 실무진 회의...회의 연기 대비 대응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 광주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국토교통부, 행안부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종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회의 일정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나서기로 확정된 데다 군공항 이전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마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회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 등도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공군본부 등 4개 기관 실무진은 지난 5일 어수선한 계엄사태 속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회의실에 모여 오는

13일로 예정된 회의일정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갈 길이 바쁜 광주시는 2021년 5월 제2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된다는 점을 들어 일단 실무진 간 회의 등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이더라도, 이번 첫 회의는 5개 기관 실무진간 상견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군공항 이전 사업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 연기 등에 대비한 다양한 후속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내로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특위)를 구성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탄핵사태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선물주머니'

9일 오전 광주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양리두남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할 미역, 참치, 삼파 등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크리스마스 앞둔 광주 빛으로 물든다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열려
양림동·시청 등 빛조형물 설치 등

올 겨울 광주 도심 곳곳이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

광주시는 "내년 2월까지 연말연시 겨울 시즌 축제·행사를 통합브랜드인 '2024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사직동과 양림동, 아시아아시아문화지구, 5·18민주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화려한 빛조형물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유네스코 창의벨트 3관역 사직공원 '빛의 숲'은 기존 역사자원, 공공미술, 사직타워, 사직단 등과 연계해 주야간 관람이 가능한 테마파크형 미디어아트 공원으로 조성돼 미디어아트 관광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바로 옆 양림동 일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도 열린다.

양림오거리의 대형트리와 함께 양림동 곳곳에 경관 포토존이 조성되고, 크리스마스 이브닝 행사, 촛불퍼레이드, 캐롤공연, 공예거리 산타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양림오거리에서 양림미술관, 호랑가시나무, 양림산 선교사 묘역까지 빛의 거리도 조성한다.

또 양림동과 5·18민주광장, 동명동을 연결하는 '빛의 거리 벨트' 조성을 위한 아시아아시아문화지구 빛의 거리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

한다. 5·18민주광장 주변의 빛의 음성, 빛의 분수대, 음악 분수대 등 미디어 야간 경관자원과 연계해 금남로, 빛의 음성 거리, ACC 주변 가로수 조명 등이 설치된다.

아시아아시아문화거리 일대 거리는 다양한 거리조명으로 환하게 밝힌다. 오는 20-21일에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듬뿍 담은 구시청 나이트페스티벌도 개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에 가면 연말연시 선물도 준비돼 있다. 대형 조명리본과 선물상자조명 큐브박스 앞에서 인생선물샷을 한 컷 찍은 뒤 문화정보원 로비에 가면 대형트리를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청 잔디광장 크리스마스스윙, 광주 송정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 광주시립수목원 전시온실 크리스마스트리, 북구청 광장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운천저수지 크리스마스트리, 광주 신세계백화점 야간경관 등 광주 곳곳이 아름다운 조명과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광주관광공사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도 기대를 모은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사직공원 빛의 숲,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아시아아시아문화지구 빛의 거리,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 4곳 이상을 방문한 뒤, SNS에 인증하면 하루 20명 선착순으로 오메나 캐릭터 기념품을 선물한다.

2024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포털 '오매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민생 경제·시민일상 지키는 데 집중"

비상계엄 관련 긴급 간부회의...집회 참여시민 안전대책 등도 점검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경제·취약계층 챙기기 등에 집중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경제와 시민 안전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광주)지역에 미칠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

을 살피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주요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이 5·18민주광장에 모여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보호는 행정의 제1 의무인 만큼 시민의 안전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삼국장 현안회의를 열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혹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

장이 예측되는 등 비상상황"이라며 "여기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조속히 집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 내년도 예산 감축 때문에 민생 추경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정부 민생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미리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안정대책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행사

오늘 전남도립도서관

전남에서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축하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는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도민 축하행사를 연다.

행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특강, 시 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예술

인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도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124회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 책을 빌리는 도민 124명에게 선착순으로 재미있는 송이를 선물한다.

전남도문인협회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를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또 10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 플랫폼(줌)을 통해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를 읽고 서로의 감상평과 생각을 교류하기 위한 온라인 독서토론을 연다.

전남 7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10일부터 31일까지 기존 도서 반납 기간을 지키지 않아 책을 빌릴 수 없었던 도민을 대상으로 행사 기간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하면 대출 정지를 해제기로 했다.

장흥군도 10일 밤 11시40분부터 한승원 문학학교에서 시상식을 함께 보면서 축하행사를 연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축하 행사를 통해 도민이 문학의 감동과 가치를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